

❖ 序

文献誌는 忠州 池氏의 文献을 기록한 것이다.

옛 聖君은 지금 池氏는 우리나라 一士大夫家로서 고려로부터 我朝에 이르기까지 祖孫이 서로 이어온 것이 거의 千年에 가까운데도 문헌의 傳承이 이렇게 빛나니 어려운 일이 아닌가.

대개 문헌은 孝行·忠節·文學 三者에서 벗어나는데, 孝行 世涵·都事 達汶·贈叅議 春慶·叅奉 洞·師傳 鳳輝·士人 秀荷와 그 弟 秀荇·汚叟 萬游·至隱·德裕·正言 德斌·後松 錫疇 諸公이 있고, 忠節은 贈叅議 繼江·節制使 淨·贈佐郎 達源·贈判決事 河福·別將 得海·別將 繼海·贈叅判 汝海·忠城君 繼催·教官 景澈 諸公이 있고, 文學은 吏郎 達河·教導 承漢·松亭 達海·關川 景淸·贈承旨 德海·生員 鳳翼·青邱子 光晉·松岡 應龍 諸公이 있다. 이들은 이름이 난 분이지만 그 밖에도 한 둘이 아니다.

내가 보건대, 근세 名門巨族으로 宦達은 池氏보다 나은 자가 많으나 文献에 이 三者를 겸한 자는 오히려 池氏보다 못하다. 이는 池氏 선조의 德이 아니면 안 될 것이며, 그 전승의 노력이 훌륭하다. 池氏 여러 宗中이 다시 이誌를 펴내기 위하여 後松公의 胤子 近洙가 나에게 글을 부탁하기에, 나는 늙고 붓이 무디어서 사양하였으나 그 간청이 절실하므로 병을 무릅쓰고 말하기를, “士夫의 士夫됨은 祿位에 있지 않고 文献에 있으니, 文献이 없고 祿位가 높은 자는 비록 盛하나 衰한 것이고, 祿位가 없고 文献이 있는 자는 비록 衰하나 盛한 것이다. 盛衰는 文献에 말미암는다.

지금 池氏는 비록 이름을 떨치지 못하고 있으나 靑紫에 마음이 없고 오직 서로 닦고 노력하여 집에서는 孝요, 나라에서는 忠이며, 거기다 학문으로 근본을 삼아 위로 前人의 文献을 밝히고, 아래로 後孫의 文献을 열어 주어, 文献의 傳承이 替衰하지 않으면 池氏의 家族이 다시 來世에 밝게 빛날 것이나, 다만 이誌를 엮을 뿐이겠는가. 池氏는 삼가 생각해 볼 것이다.”